

大學教育을 爲한 大學圖書館의 支援方案

江陵大學校 中央圖書館
黃 公 南

□ 目 次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大學圖書館의 教育支援機能 強化 方案 |
| 2. 大學教育의 目的 | 5. 맺는말 |
| 3. 大學圖書館의 機能 | 參考文獻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社會의 構造와 生活이 점차 複雜, 多樣化 되고 教育水準과 知識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大學教育도 크게 改革되어 과거의 傳統의인 教育方式에서 벗어나 세미나식, 問題解決式, 討議式 그리고 集團探究 등의 教育學習 形態로 多樣하게 變化하게 되었다. 또 大學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卒業論文制와 綜合試驗制를 導入하여 학생들의 勉學精神에 一針을 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大學에 있어서 學究的인 생활에 專念하지 않고서는 학교생활에 適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大學教育을 바람직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할 義務가 大學圖書館에 附與되었다.

大學 構成의 3대 要素인 학생, 직원(교수), 시설중에서 시설의 한 부분인 圖書館은 西洋의 대학에서는 "Library is the heart of a university." 라고 하여 大學圖書館의 重要性을 강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中心이며 中樞的인 求心體이며 우리 身體로 볼때 심장부의 役割을 하는 곳이다.

大學圖書館은 그 대학의 거울이다. 어느 대학을 가든 그 대학의 圖書館을 먼저 대

하게 된다. 그것은 圖書館을 보고서 그 대학의 水準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또한 그 대학의 評價 尺度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常識이며 누구나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傾向이다.

따라서 圖書館이 현저히 발달된 나라이면서 國力이나 文化, 經濟的인 여러면에서 뒤진나라는 찾아 볼 수 없으며, 훌륭한 圖書館을 가진 대학이면서 名聲이 있는 우수한 대학이 아닌곳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先進國일수록 圖書館은 훌륭히 發展되어 있으며 名聲있는 대학일수록 훌륭한 圖書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大學圖書館은 대학의 여러 機構중에서 가장 훌륭한 機構임엔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獨立된 圖書館대로의 發展策을 강구하지 않은 채 無關心속에 外面해은 事例가 많았던 것이며 또한 默認되어 왔을 뿐이다.

1960年代에는 그 대학에 圖書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有無를 論하는 정도였으며, 70年代에 들어서서는 大學設置 基準令에 依한 對策에 급급하여 藏書量과 閱覽席을 늘리는 量的 문제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80年代에 와서는 대학마다 매머드 圖書館을 경쟁이나 하듯 다투어 세웠다. 그리고 80年代 末부터 90年代에 들어와서는 각 대학마다 새로운 시설의 基盤위에서 電算化, 自動化에 눈을 돌려 質的인 문제에 關心을 두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大學圖書館들이 大學當局에 전혀 外面만 당하고 있지 않다는 示唆이며 大學圖書館 자체에서 보아도 踏步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評價를 내릴수가 있겠다.

비록 大學의 量的 膨脹과 함께 많은 問題點이 提起되어 오기는 하였다. 이와 동시에 大學의 質的 發展도 어느정도 이루어져 왔음을 是認한다면 분명 大學圖書館은 발전해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은 圖書館 本來의 機能을 前提로한 建物 및 施設의 擴充, 效率的인 組織과 有能한 司書의 確保, 不足함이 없는 藏書와 情報物의 保有, 閱覽業務의 最善化 및 極大化 方案, 기타業務의 開發 및 改善 등 內的인 問題點들이 곳곳에 散在해 있다.

大學圖書館은 大學社會의 가장 重要한 知的 資料原으로서 그 大學의 教育과 研究 活動을 돕는 奉仕機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Paul Buck은 “質的으로 훌륭한

圖書館이 없이는 質的으로 높은 교육도 不可能하며 質的으로 우수한 教授陣도 確保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대학에서 圖書館의 位置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말은 圖書館의 效果的인 奉仕活動 없이는 大學教育의 발전은 期待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학의 學風造成은 大學圖書館 機能이 얼마만큼 活性化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그런 意味에서 본考에서는 大學教育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大學圖書館의 教育支援方案에 대해 論해 보고자 한다.

2. 大學教育의 目的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教育法 제 108조에 明示하고 있듯이 大學의 使命은 教育, 研究, 奉仕에 있다. 대학은 흔히 學問 研究의 殿堂이며 眞理探究의 殿堂, 象牙塔이라고 한다. 또한 대학은 最高의 高等教育機關이며 專門教育의 總本山이며 深奧한 學術의 深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大學教育의 주된 임무는 교육과 研究活動인 것이다.

따라서 教授는 廣範圍한 知識과 專門的인 知識을 학생에게 가르치며 國家社會 발전에 직접 貢獻 할 수 있는 人間을 育成하는 동시에 학생을 劃一的 講義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學問하는 方向을 設定하고 教授의 繼續的인 研究心에 刺戟받고 강화되어 研究에 專念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目標은 國家에서 要求하는 人物의 限界를 넘어서 世界的인 인물을 바라고 기르는 것이다. 대학은 學術文化의 研究機關으로서 항상 새로운 연구활동을 하여 學術의 進歩와 문화향상에 貢獻하는것이 대학의 使命이요 任務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대학은 社會의 側面에서 볼 때 다음 4가지로 그 使命을 말할수 있다.

- ① 高度의 知的 文化를 傳達하는 일.
- ② 그것을 創造, 發展시키는 일.
- ③ 科學者, 技士, 教師, 企業體 管理者등 각종 高級人力을 供給하는일.
- ④ 國家社會와 人類가 當면하는 諸問題를 解決함으로써 社會改造에 직접 參與하는 일이다.

이렇듯 대학은 연구 自體뿐 아니라 그 構成員들의 現實參與에도 큰 比重이 있는데 이러한 大學構成員들에게 그 연구하고 奉仕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해 줄 수 있는 機構가 바로 圖書館인 것이다.

3. 大學 圖書館의 機能

單純한 표현 같지만 大學圖書館의 基本的 機能은 大學의 活動을 돕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은 대학사회의 가장 중요한 知的 情報原으로서 大學教育和 研究目的을 成就하도록 돕는 學術을 위한 補助機關이다. 大學圖書館의 基本的인 役割은 教育적인 것이다. 따라서 圖書館은 閱覽室에 附屬된 보잘것 없는 冊倉庫로서가 아니라 教育的인 動態인 機構로 運營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大學圖書館은 단순히 圖書館 資料를 保管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그 効果적인 利用을 試圖하고 積極的으로 학생, 교직원 및 연구자들에게 學的 자료를 제공할 중요한 役割을 가지고 있다. 즉 資料의 選擇, 蒐集, 目錄, 分類, 閱覽 및 參考 등의 業務를 遂行함은 물론 대학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에게 蓄積된 資料의 活用을 위하여 각종 文獻의 索引, 書誌目錄의 作成, 抄錄適用 등 大學教育의 發展과 學術研究의 進歩 등에 대하여 대학에 있어서 教育活動을 도와주는 奉仕機關(Service agency)임과 함께 研究活動을 促進하기 위한 資料센터(Material Center) 이어야 한다.

大學圖書館은 학생들에게 知的糧食을 提供해야 하고 教授들의 研究를 뒷받침해야 하며 利用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圖書館의 모든 知的, 文化的 兩面에 참여토록 招待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圖書館 利用은 하나의 教育的方法으로 그 意義를 갖는다. 司書는 大學教員으로서 學生들을 指導하며, 調查 및 研究면에서 大學圖書館은 教授陣의 研究와 講義를 積極的으로 도와준다.

오늘날 大學에 있어서는 全體知識의 傳達이 아니라 學生들이 知識을 얻을수 있는 能力을 刺戟하고 學問하는 方法에 눈뜨게 해주면 된다. 즉 講義는 그저 學問의 基礎와 方法에 대한 몇가지 Service를 제공하는데 그친다. 또한 教授는 文獻誘導式 教

授方法에 의한 講義를 實施하여 학생들이 圖書館을 利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大學圖書館의 機能과 役割이 어떠한 것인지는 明白해진다.

大學圖書館이 말은바 目的을 完수하기 위하여는, 대학내에 필요한 圖書館 資料를 充分히 準備하고 全 在學生, 教職員, 및 研究者의 모든 필요에 應해 效果의으로 利用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館內에서 資料의 流通이 보다 자유로이 되고 학생이나 研究者가 資料를 손쉽게 利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여기에 大學圖書館의 現代의任務가 있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의 또 한가지 重要性은 大學教育에의 圖書館의 참여이다. 이런 부여된 任務를 完遂하기 위하여서는 共通의인 資料의 蒐集, 整理 이외에도 專門分野의 參考業務, 書誌作成, 抄錄, 文獻調查 및 紹介등 教授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情報과 知識을 가지고 問題解決의 方法과 研究의 方向을 提示할 수 있어야 하며 教授들의 研究나 調查活動을 積極의으로 돕는 莫重한 機能을 遂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上述한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要約해 보면

- 1) 大學의 教育 計劃을 돕는일
- 2) 授業進行에 사용되는 書籍, 定期刊行物, 文書, 音響資料등을 蒐集 整理하고 그 最善의 利用을 위해 奉仕한다.
- 3) 圖書館 資料를 利用하는데 必要로하는 物的 施設이나 條件을 準備 提供한다.
- 4) 학생들이 效果의으로 圖書館 施設 및 資料를 利用할수 있도록 指導해 준다.
- 5) 학생들이 대학을 卒業한 後에도 그들의 知的 發達은 圖書館을 利用하도록 自習의 習性을 育成함을 돕는다.
- 6) 教材이외의 趣味를 위한 讀書를 獎勵한다.
- 7) 教授陣이나 학생들의 研究활동에 隋伴되는 圖書館 要求를 最大限으로 充足시킨다.
- 8) 地域社會, 地方 및 기타의 圖書館과 相互協力한다.

以上과 같이 大學圖書館은 情報, 서비스센터 만이 아니라 研究, 調查機關으로서의 機能도 갖고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現代的 大學教育의 歷史는 극히 짧은 만큼, 그 制度의 面에 있어서나 教育內容에 있어서 또는 運營에 있어서 아직 確固한 基盤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 國公私立의 大學을 莫論하고 뚜렷한 教育的 特色을 가지고 있다고 斷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최근까지 大學教育은 質的인 面에 있어서 보다는 量的인 面에 있어서, 즉 大學教育에 있어서도 教育的 機會均等이 強調 됨으로써 大學은 「普通教育」의 中心이 되다 시피 되었다. 그러나 大學教育은 知識의 習得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새 知識을 위한 探究의 創造的 活動과 함께 社會의 一員으로서의 「市民」으로서 또는 「自由人」으로서 人格을 鍊磨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教養教育을 強調하는 나머지 專門的知識과 研究를 위한 面이 大學教育에서 극히 소홀히 되는 傾向이 있으며 심지어는 大學生도 大學教育을 올바르게 받는데 있는것이 아니고 在籍만 하면 되는 것으로 까지 誤解하며 大學當局者도 教育內容이나 人才育成에서 벗어나서 教育은 물론이요 大學을 惡用하는 傾向도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在 우리나라에서도 大學教育의 完成을 위하여서는 圖書館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強調하는 時代가 닥쳐왔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의 責任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專門職으로서 司書들은, 이와 같은 大學教育의 發展에 있어서 重大한 意味를 가진 大學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積極的으로 研究하여 改善하는데에 萬全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大學圖書館의 보다 나은 發展을 위하여서는 教授와 학생과 緊密한 關係를 가지면서 圖書館學에 依한 大學圖書館의 發展의 方向으로 積極的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

이제는 大學圖書館人을 莫論하고 全圖書館人은 그 大學에 있어서나 社會에 있어서 보잘것 없는 존재가 아닌, 없어서는 안 될 堂堂한 成員으로서의 位置를 뚜렷하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주어진 責任과 使命을 積極的으로 遂行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神聖한 任務일 것이다. 이제부터의 問題는 우리가 그 任務와 어떻게 잘 싸워 나가는가 하는데 있다.

4. 大學圖書館의 教育 支援 機能 強化 方案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을 “知識의 爆發時代” “情報의 洪水 時代” 라고 命名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時代 狀況에 처해서도 우리의 教育方法은 여전히 “教師→教科書→講義→暗記→”의 方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時代錯誤라고 할 것이다. 時代가 變化하면 그 變化의 性格에 適合한 새로운 教育방법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잘못된 教育방법의 影響으로 인해 圖書館利用에 익숙치 못한 학생들 -특히 新入生들- 은 既存의 大學인들 -上級生, 職員(司書), 教授- 로 부터 圖書館 利用에 있어 無知에 대한 비웃음을 받고, 沒常識을 問責받고, 批判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初等, 中等教育에서 圖書館에 대한 教育이나 圖書館을 이용한 情報調査의 訓練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 또 大學入試를 중심으로한 教育속에서는 스스로 主題를 發見하고 文獻調査를 포함한 現場學習을 行하고 거기서 얻은 事實을 土臺로 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習慣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

위와 같은 教育의 矛盾을 없애기 위하여 大學圖書館은 大學教育의 發展과 學術研究의 進歩를 위해서 大學內의 教育活動을 補助하는 奉仕機關으로, 研究活動을 促進해 줄 수 있는 資料의 中心으로 모든 施設과 資料를 갖추고 大學圖書館 本來의 目的에 맞게 活動 해야 하겠다.

이렇듯 大學圖書館이 대학의 教育機能을 效果的으로 支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圖書館 利用教育을 잘 시켜야 하겠다. 또 학생들의 授業에 參考할 圖書를 充分하게 確保하고 이를 課題 圖書室에 두어 效率的으로 管理하면 좋겠다. 아울러 專門司書を 充分히 確保하고 학생들이 藏書에 직접 接觸할 수 있도록 圖書館을 開架式으로 運營하며 圖書管理 業務를 電算化 하는 것은 教育支援 機能強化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方案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4. 1 圖書館 利用 教育

오늘날 大學圖書館은 建物自體가 매우 클 뿐 아니라 提供하는 情報의 種類도 매우 多樣하다. 따라서 新入生들이 既存의 在學生중 圖書館利用에 積極의이지 못한 학생 포함 大學圖書館을 效果的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充實한 圖書館 利用 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 高等學校 時節에 圖書館의 利用이 一般化되어 있는 先進國 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高等學校 학생은 學校圖書館이나 地域의 圖書館을 거의 利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분적인 圖書館의 利用조차도 學習資料나 課題 解決을 위한 資料를 求하기 위해서 보다는 大學入試 準備를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였기 때문에 大學新入生들의 圖書館이용 요령은 매우 未備할 수 밖에 없다. 많은 大學校에서는 新入生들이 大學生活에 잘 適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大學生活 案內」등의 冊子를 製作해 나누어 주기도 하고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學習方法, 課題物 作成法, 圖書館 利用法 등을 指導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利用案內도 短時間에 疏忽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新入生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1學點 정도의 定規科目으로 設定하여 여기에서 보다 充實하게 大學 圖書館 利用法 등 大學生活 案內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학생들이 適切한 文獻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大學 圖書의 分類體制와 檢索 體制에 親熟해져야 한다. 아직 圖書管理業務가 電算化되지 아니한 圖書館에서는 圖書目錄을 이용해 필요한 資料를 效果的으로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大學의 圖書分類體系에 대한 教育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圖書의 貸出과 返納制度, 閱覽室 利用規則, 圖書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類型과 그 利用法 등도 圖書館 利用 教育에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圖書館 利用教育에 包含 시켜야할 또 다른 教育內容으로는 貸出된 資料를 깨끗하게 利用해야 한다는 極히 常識的 內容이다. 부끄럽게도 아직 우리 사회는 公共物을 個人的 物件과 마찬가지로 아끼는, 至極히 當然한 公衆道德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貸出된 圖書에서 自身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오려내고, 낙서와 밑줄로 책을 더럽히고, 책을 함부로 다루는 등의 不幸한 일들이 大學社會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教育이 必要한 實定이다. 또 앞으로 کم

퓨터 디스켓이나 映像音盤資料, CD-ROM 등 非圖書資料의 活潑한 利用이 豫想되는데 이러한 境遇에도 위와 같은 狀況이 벌어진다면 深刻한 問題가 아닐수 없다. 大學圖書館에서는 必要한 文獻을 複寫해 주거나 本人이 複寫해 가기도 한다. 그러나 資料의 複寫는 分量이 많을 경우 著作權에 의해 禁止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著作權에 대한 基本的인 案內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圖書館 利用指導는 각 分野의 學術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나 自己改善의 教養을 習得하는데 있어서 그 研究와 習得期間을 短縮할 수 있도록 모든 資料를 效果的으로 探索하고 體系的으로 組織하며 最大한 活用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다.

4. 2 圖書와 指定圖書室의 確保

大學生들은 新學期가 되면 受講科目의 講義計劃書를 받게 된다. 이 計劃書에는 授業目標, 教科目的 概要, 授業內容과 進度, 學習評價 計劃과 함께 教科書와 參考書의 目錄이 包含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主教科書 이외의 參考圖書에는 關心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質이 向上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充實한 講義計劃書가 作成 및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이 그 科目을 成功的으로 履修할 수 있기 위해서는 講義計劃書에 나타난 參考圖書 모두를 實際로 參考하여 學習內容을 補充하고 講義計劃書에 提示된 課題物을 充實하게 作成하여 提出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教授들은 講義計劃書 작성시 參考文獻의 著者, 圖書名, 出版社, 出版年度와 함께 그 大學의 圖書 分類番號를 적어 넣어 학생들이 손쉽게 參考圖書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이다. 만일 參考文獻이 大學에 確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圖書館에 미리 연락하여 講義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圖書들이 確保될 수 있도록 措置해야 할 것이다. 또 指定(課題)圖書의 경우에는 그 圖書를 많은 학생들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受講 학생수를 考慮하여 한 種類의 圖書를 여러권 確保해야 하며 必要에 따라서는 貸出期間을 短縮하거나 圖書館內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指定圖書를 利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指定圖書만을 모아두는 指定圖書室을 設置하면 效果的일 것이다. 指定圖書制度는 大學教育에 있어서 教室내에서의 講義 實習과 教室外에서의 自學自習이 이루어지는 學風을 돕는데서 由來된 것으로 圖書館이 教育計劃實施를 위한 實驗室 즉 教室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指定圖書 閱覽室은 科目擔當教授가 課題로 학생들에게 읽도록 指定한 資料만을 모아놓은 閱覽室을 말하며 短期間에 全 學科학생이 同一한 資料를 찾을 것에 對備하여 相當수의 複本이나 複寫裝備를 設置하여 필요한 資料를 손쉽게 複寫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다. 指定圖書는 教授들이 훌륭한 授業을 進行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文獻들을 要請한 것으로 構成되는데 圖書館도 이러한 圖書를 充分히 備置하고 학생들이 잘 利用할 수 있도록 閱覽 및 貸出時間을 規定하고 效果的인 利用을 위해 奉仕해야 한다.

司書는 講義 計劃에 參加하여 教授들의 講義計劃書 作成과 研究資料 蒐集에 書誌的 助言을 하고 講義를 效果있게 遂行하도록 도울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을 講究해야 하며 指定圖書 奉仕를 맡은 司書는 大學의 教育課程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教授들과 늘 接觸하여 教授들의 關心이 무엇인지 알도록 努力해야 한다.

指定圖書 運營方法으로 規模가 작은 圖書館에서는 場所와 職員이 不足하므로 指定圖書室이라고 하는 별도의 방이 없고 指定圖書를 貸出臺 뒤의 書架에 두었다가 貸出業務 틈틈이 내주는 形態의 檢치기 奉仕일 수도 있지만 規模가 큰 圖書館의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指定圖書室을 運營한다.

1) 閉架式 (Closed-Shelf system)

모든 指定圖書를 貸出臺 뒤에 두고 要請에 따라 司書가 資料를 貸出해준다.

2) 開架式 (Open-Shelf system)

모든 指定圖書를 書架에 配列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閱覽한다.

3) 混合式 (Combination System)

課題로 提示된 資料는 閉架式을 適用하고 補充적 讀書을 위한 資料는 開架式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指定圖書室이 제기능을 다하여 教授와 학생들의 要求에 滿足하게 運營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條件들이 필요하다.

첫째, 教授는 授業進行上 必要한 資料들이 學期 시작전 圖書館에 準備되어 있는지 確認해야 한다.

둘째, 教授는 課題를 부과하기전에 司書가 指定資料를 準備할 시간의 여유를 갖도록 一週日前에 指定希望資料目錄을 보내야 한다.

셋째, 教授는 指定希望資料目錄을 作成할 때 학생들이 꼭 읽을 資料와 補充讀書資料를 分明히 區別해 주어야 한다.

넷째, 需要가 많은 資料는 充分한 部數의 複本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정해진 期間內에 다 利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司書와 教授의 相互協助이다.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 指定圖書制度의 運營이 잘 안되는 理由는 施設과 資料의 不足도 原因이겠지만 가장 큰 問題는 教授와 司書間의 協助가 되지 않는 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의 形편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지만 指定圖書制度가 教育方法의 改善과 課題授業을 위한 捷徑이라는 점을 認識하여 이 制度를 擴大 實施하는 것만이 學風造成을 위한 活性化方案이라고 생각된다.

4. 3 專門司書의 確保

지난 몇 世紀 동안 人類는 과거 100만년 동안에 蓄積해 온 知識보다도 더 많은 知識을 創出하였다. 既存 學問은 分化를 거듭했고 두 分野 以上の 學問으로부터 새로운 學問 領域이 誕生하여 각 大學圖書館에서 新規 藏書를 分類하는 일 自體가 高度의 專門性을 필요로 하는 業務가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知識의 發達速度가 더욱 加速化되고 있어 圖書館의 情報를 分類하고 檢索하는 業務는 더욱 專門化 및 細分化 될 展望이다. 따라서 각 大學圖書館도 規模에 따라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에 이르는 司書를 확보하여 情報流通 業務를 圓滑하게 해 줘야 할 것이다.

어느 機關이고 職制確立이 중요한 만큼 人事配置도 또한 중요하다. 그러기에 圖書

館에 있어서 司書의 配置는 專門性과 特殊性을 認定하여 正司書나 準司書의 資格을 갖춘자 만이 司書職에 從事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것이 司書의 資質 向上이다.

大學圖書館의 業務는 圖書館의 共通의인 業務인 資料의 蒐集, 整理(分類, 目錄)이 외에 專門分野의 參考業務, 書誌, 索引, 抄錄, 文獻調查 및 紹介 등이 부가되는 것으로 이러한 業務를 적극 補助할 수 있는 高級의 專門司書가 要請되고 있다.

또한 大學圖書館의 專門司書는 어느 分野에서 보다 專門的인 知識을 要求하며 비록 講壇에는 서지 않지만 研究하는 教授와 같으며, 나아가서 大學圖書館의 專門司書의 役割은 더 廣範하며 教授보다 더 몇 배의 研究와 努力이 要求된다. 또한 그들은 大學의 資料를 選定하고 大學社會에 參考奉仕를 提供하며 圖書館 利用을 指導하고 드물게 利用되는 資料를 찾아내어 利用시켜 주는 일도 해야한다.

각 學問分野別 專門司書는 新規圖書의 分類作業의 遂行과 함께 大學生들에게 그 分野에 관한 大學圖書館 所藏의 文獻을 體系的으로 紹介해주고 필요한 文獻을 찾거나 情報를 檢索하고자 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專門司書의 一般的 活動 分野는 學說이 매우 多様하지만 Clossley가 提示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均衡있는 藏書構成의 責任
- 2) 讀者에 대하여 資料 및 圖書館을 利用할 定期, 非定期적인 案内와 講義
- 3) 學科, 學生, 教授와의 긴밀한 橋梁의 役割의 擔當
- 4) 主題分野의 參考, 情報活動의 展開
- 5) 書誌, 案内書, 讀書目錄의 作成
- 6) 分類, 目錄業務
- 7) 主題分野의 研究活動을 遂行한다.

미래 社會에서는 情報의 單純 暗記나 貯藏 業務의 대부분을 컴퓨터가 擔當하게 될 것이며 情報處理體制에서는 人間이 擔當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問題의 解決을 위해 最上의 情報를 蒐集하고 이 情報를 組織化하여 그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專門司書를 통해 特定 專攻分野의 情報體制의 構造와 活用機能에 대한 教育을 받는것은 專攻科目의 教育 못지 않게 중요하게 간주될 것이다.

4. 4 開架式 運營

大學圖書館이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藏書를 직접 접할 수 있게 하는 利用의 極大化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開架式 書架의 運營이다. 奉仕가 最大의 基本 業務인 圖書館이 資料를 가장 迅速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施設을 갖추는 것도 必需的인 일이다. 開架式 運營은 물론 藏書의 紛失과 毀損, 管理問題, 空間과 人力, 財政의인 問題 등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數의 大學圖書館은 아직도 학생들이 目錄을 調查하여 필요한 圖書의 貸出을 申請하는 閉架式으로 運營되고 있다. 그러나 先進國의 大學에서는 開架式 制度가 오래전부터 一般화된 制度이다.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들에서는 아직까지 상당수가 閉架制로 運營되고 있는데 開架式의 높은 利用率로 보아 어느 施設보다도 우선해서 漸進的으로라도 改善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大學圖書館의 開架式 運營은 학생들에게 專攻分野의 깊이 있는 研究는 물론 다른 隣接學問에 대해서도 關心과 興味를 誘發시키고 疑懼心을 일깨우는데 있어 가장 좋은 制度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情報가 圖書로 보다는 CD-ROM이나 Micro形態의 資料(firm, fiche)로 提供될 展望이어서 학생들이 書庫안에서 낡은 藏書 특유의 냄새를 즐길 수 있는 機會가 줄어들 것이지만 학생들이 넓은 空間을 뻑뻑이 채우고 있는 藏書에 한편으로 威壓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機會를 주는 것은 教育的으로 매우 意味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圖書를 아끼는 마음을 길러주고 圖書管理를 컴퓨터화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大學圖書館을 開架式으로 運營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期待해 본다.

4. 5 圖書管理 業務의 電算化

司書 業務를 제외한 대부분의 圖書館 業務는 비교적 單純하고 反復的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電算化가 必需的이고도 效率的이다. 또한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情報資料를 갖추고 있는 圖書館이라 할지라도 그 地域社會에서의 情報資料要求를 完全히 充足시켜 줄 수는 없다. 따라서 國內는 물론 外國의 情報資料에도 情報網을 連結하여 情報자료를 최대한 活用하기 위해서는 大學圖書館의 電算化가 必需的인 要件임을 알 수 있다.

圖書館의 電算化業務는 貸出管理의 電算化, 檢索시스템의 構築, 行政業務의 電算化로 大別 할 수 있는데 이 중 行政業務의 電算化는 大學全體의 行政業務 電算化의 일부로 遂行될 것이므로 圖書館 固有的인 電算化는 아니다.

圖書貸出 業務는 資料의 入力問題가 解決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電算化 體制가 構築될 수 있다. 학생과 教授들에게는 圖書館 出入과 圖書 貸出에 利用할 수 있는 카드가 發給되고 이 카드를 利用한 圖書貸出 實態가 컴퓨터에 의해 정리된다.

大學圖書館 業務 電算化의 꽃은 文獻檢索 또는 보다 一般的으로 情報檢索을 可能하게 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요즘엔 컴퓨터 性能이 놀라운 속도로 向上되고 우수한 情報 檢索프로그램이 多樣하게 開發된 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격 모두 다 대폭 떨어져 大學圖書館의 情報檢索 시스템 構築이 容易해졌다.

最近에는 大學圖書館 電算化를 推進하기 위한 活潑한 努力들이 각 大學圖書館間에 일어나고 있는 現狀이나, 圖書館 電算網을 構築하기 위한 일련의 努力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政府에서도 國家基幹 電算網을 추진하면서 金融, 行政, 公安, 國防網과 함께 教育研究網을 포함시킨 5大基幹電算網을 構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며, 教育研究網의 構築이 完成된다면 大學圖書館 情報서비스의 質은 한 차원 높아질 것이 分明하다. 急變하는 地球村 時代에 부응하여 研究環境을 合理的이고 迅速하게 造成하여 주기 위하여 海外 情報網과 연결하는 것 등 情報共有를 위한 努力이 大學圖書館이 遂行해야 할 必需的이며 시급한 課題라 할 수 있다.

5. 맺는말

前章들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落後된 韓國大學의 質的인 向上은 學校內部的인 充實에 있고 이 學校內部的인 充實도 곧 圖書館의 充實과 正常化에 있다. 이같이 圖書館의

正常化를 위해 學校의 至大한 關心은 물론 圖書館員의 奉仕에 대한 態度 또한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大學教育의 改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教授의 質과 학생의 勉學精神을 일깨우는 教育의 廣範한 政策豎立 過程에서 大學圖書館 發展을 위한 育成策을 소홀히 하거나 除外 시킨다면 大學의 眞正한 發展을 期待 할 수 없다. 이러한 文題는 大學當局에서 積極나서서 打開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大學當局은 大學圖書館을 과거처럼 大學의 한 附屬機關같이 여기는 習性을 탈피하고 中核機關이라는 積極的 關心下에 大學圖書館 育成에 인색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專門的인 業務는 圖書館 自體가 맡겠지만 財政의 뒷받침이나 育成責任은 窮極的으로 大學當局에 있음이 分明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大學當局들을 大學圖書館 發展에 努力하고 있는 편임을 否認 할 수 없다. 또한 전보다 關心度가 높아진 것도 事實이다. 이것은 거의 外形的으로 나타난 成果나 評價이지 實際 어느정도의 關心과 努力을 競走하고 있는지는 未知數이다. 건물과 施設면에서 뿐만 아니라 組織과 人事 그리고 閱覽奉仕 및 藏書의 增大, 技術업무에 이르기까지 改善하고 發展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뒷받침과 協助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훌륭한 大學圖書館이 없이는 훌륭한 大學이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大學圖書館 機能의 強化는 大學의 教育과 研究機能의 活性化를 위한 必須條件이다.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은 짧은 大學의 歷史와 大學 財政의 不足으로 아직 教育과 研究를 充分하게 支援해 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大學圖書館이 大學教育 支援機能을 充實하게 遂行하기 위해 圖書館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은가를 몇가지 項目으로 나누어 記述하였다. 이 중 一部分은 이미 一部 또는 大多數의 大學에서 施行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아직 우리의 現實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까지 筆者가 짧은 期間동안 大學圖書館에 적을 두면서 보고 느꼈던 점들을, 비록 未洽하고 概略적인 內容에 不過하지만 論述하였다.

진정한 大學 發展을 위한 大學教育은 全 大學人과 大學當局의 關心속에서 大學圖

書館을 育成시키는 것만이 最善의 解決策이라는 結論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大學圖書館 展望은 希望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김기태. 대학교육과 도서관의 역할. 국회도서관보 163(83. 3) P.5-13.
2. 김남석. 대학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열람봉사를 중심으로-. 도협월보 12-5(71. 5) P.2-6.
3. 김만석.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 육성론. 도서관논고 2(홍익대도서관) 1978-1982 P.25-40.
4. 손정표. 새도서관법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도서관문화 260(90. 2) P.4-13.
5. 웅정무행. 대학의 교육, 연구와 도서관. 김영귀 역. 도서관 326(93. 6) P.38-48
6. 이범숙. 대학도서관의 기능 소고. 계명도서관학보 1(82. 12) P.112-117.
7. 이화국. 대학도서관의 교육·연구지원 기능 강화. 대학교육 65(93. 11) P.35-42.
8. 임대삼. 고등교육기관의 전공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77.
9. 한상완. 대학도서관의 이상과 현실. 대학교육 65(93. 10) P.10-18.
10. "대학도서관". M.A. 질펀드 著. 이병목 譯. 서울. 구미무역. 1985. P.235.
11.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론". 한상완. 서울. 구미무역. 1986. P.229.
12. "도서관조직경영론". 김세익.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P.242.
13. "도서관학개론". 임종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262.
14. "도서관학개론". 현대도서관학총서편찬위원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6. P.277.
15. "도서관학. 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서울. 동협회. 1986. P.355.